

신 차 칼럼

소금눈물 모래눈물

아프리카 대륙이 기후 온난화로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숲과 초원이 없어지고 강과 호수가 마르고 농사도 지을 수없으며 가축도 치지 못합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땅으로 변해갑니다.

그 위에 정치도 안정되지 못하여 내란과 부족간의 충돌, 경제적 불안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던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섭니다.

최근 10 년동안 세계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타국으로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세계인구의 16%인 9 억명에 달한다고 여론 조사기관 갤럽의 2021년 보고했습니다. 이주에 대한 욕구는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칼리브연안의 국가 국민들의 37% 이주를 원했으며,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27%에 이르는 주민이 타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시에라리온 76%, 레바논 63%, 온두라스 56%, 아프카니스탄 53%, 도미니카 50% 등 국민의 반 이상이 타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람페두사(Lampedusa Island) 는 튀니시아에서 113 km 떨어진 이태리 남쪽의 아름다운 휴양지이지만 근래들어 아프리카대륙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환승지로 변했습니다.

피에트로 바르톨로는 이 섬의 의사입니다.

난민을 실어나르는 배가 입항하면 갑판에 올라 산 사란을 검진하고 죽은 시신을 검사하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피에트로가 검진하는 난민들의 몸은 그들이 어떤 지옥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새겨져있습니다. 칼로 베인 흉터나 담뱃불로 지진 자국은 어디에선가 고문을 당한 흔적이며, 배에난 거친 상처는 비싼 승선비를 내기위해 신장을 판 사람들이며, 성폭행에 대비하여 젊은 여성들은 독한 피임주사를 이들은 이 독한 주사가 조기폐경이나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작년 한해에 2,500 명 이상의 난민들이 지중해에 수장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둣가에서 만난 난민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하얗다고 합니다. 며칠간 거친 바람을 맞으며 소금기가 들러 붙은 탓입니다. 이들이 섬에 닿으면 살았다는 안도감이나 잃어 버린 가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이 얼굴을 타고 내려오며 하얗게 서린 소금을 녹입니다. Pietro Bartolo는 25년간 난민 주치의의 경험을 소금눈물이란 책으로 썼습니다.

유럽연합의 국경관리기관은 올해 지중해를 건너려는 이민자가 80 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위험천만한 바닷길을 이용하는 이유는 유럽각국이 국경에 높은 담을 쌓고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을 쳐 놓았기 때문 입니다. 유럽이 원래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랍의 봄, 시리아 내전등으로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시리아 피난민들과 기후변화및 전쟁과 불황으로 집을 떠나는 아프리카 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유럽 각국에서는 높은 담을 쌓고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을 설치하기 시작 했습니다. 육로가 막힌 난민들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해양경비대는 해상에서 조난당한 난민선을 발견해도 즉각 구호활동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끕니다. 파키스탄의 14 살 소년 아부자르도 이집트 리비아를 거쳐 배에 올랐다가 다른 600 여명과 함께 물속으로 가리앉은 사건도 밀입국선을 대하는 유럽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민을 수용할 의사도 여력도 없다보니 전략적으로 구조를 지연시키며 배가 자국영해 밖으로 나가기만을 기다리는 밀어내기를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데리안 갭(Darien Cap)

남미대륙에서 북미로 가려면 콜롬비아와 파나마 국경에 데리안(Darien Gap)이란 열대정글을 지나야 합니다. 비자없이 입국하는 에콰도르를 거쳐 콜롬비아 파나마를 거쳐 미국으로 가기위해, 카리비안해 제국과 남미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에콰도르 또 방글라데쉬, 중국 등 세계에서 모인 난민, 망명 희망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협곡을 통과합니다.

다리안 협곡은 열대우림 지역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열대 정글입니다. 독사와 독충 맹수, 질병,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비가 오면 계곡의 물이 험하게 흘러 어른 남자도 휩쓸려 내려가고 진흙의 수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산을 오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안내인들에게 돈을 주어야 합니다. 이 길은 밀매업자나, 범죄조직 또는 콜롬비아 무장단체(FARC), Gulf Clan 등 마약조직 등 여럿이 있는데, 밀림 안에 들어가면 강도로 돌변하거나 강간 인신 매매등 온갖 악행을 이민자들을 상대로 자행합니다.

다리안 협곡을 벗어난 난민들은 다시 행진을 계속하는데 아직도 6개국의 국경을 지나야하며 미국 국경까지는 2,500 마일을 더 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여행이 중단될지 또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위험한 여정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멕시코/미국 국경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담은 높고 칼날 같은 철조망이 막혀있습니다. 정식으로 입국절차, 망명 신청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높은 담 밑에 텐트를 치고 기다립니다. 어떤이들은 6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모래먼지로 덮힌 얼굴을 흘러내리는 모래눈물은 바로 마르지만, 마음속에 깊은 자국을 남깁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6 개월 째로 접어 들고 있습니 30,000 여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으로 팔레스타인은 거의 잿더미로 변했으며 백만이 넘는 팔레스타인들은 이집트 국경의 별판에 텐트를 치고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를 건너는 밀항선에 오를 것입니다.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고 국경의 벽은 점점 높아집니다. 국경의 벽을 높이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이 이주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난민, 밀입국, 망명, 이주는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된 일이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2023년 이민자와 난민의 날에 프란치스코교황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민자들은 가난, 두려움, 절망 때문에 도망칩니다.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고 강제 이주를 종식하려면 각자의 책임에 따라 모두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무엇을 중단해야 하는지도 묻습니다. 우리는 군비경쟁, 경제적 식민주의, 타인의 자원 약탈, 공동의 집 파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느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중에서도 많은 이주민과 난민들을 형제자매로서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할 특별한 동반자로 여기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함께 걸어야만 우리는 멀리 갈수있고 우리 여정의 공동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글/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사순 제 3주일

2024년 03월 03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화~금 미사전 묵주기도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9AM~2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내는 예수〉 야코프 요르단스, 1645-1650,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 이번 주 전례안내 〉

제 1독서 탈출기20,1-17
화답송 시편 19(18),8,9.10.11(© 요한 6,68ㄷ)



후렴.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22-25
복음 환호송 요한 3,16 참조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복음 요한2,13-25
성가 입당 118 봉헌 217, 218 성체 162, 167 파견 280

✿ 미사에 참례할 때에는 항상,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잘 읽고 묵상한 후에 참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지향 (연미사)

- 선점환(마리아)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신성희(엘리사벳) - 안을봉(요셉) 가족
- 김기준 - 이명호(비비안)
- 오정인(마리아) - 최영찬(요한), 레지나 가족
- 김은순(에스터) - 오 세실리아
- 이규호 - 이규순(미카엘) 가족
- 권숙자(요안나) - 최 세레나

✿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어부들의 마을
- 윤 넬리 - 가족, 전옥주(클라라), 박화성(헬레나), 우 이레네, 오용덕(헨리코) 가족, 백영숙(헬렌), 이서형(요안나), 소나영(안나)
- 김영필(안토니오) - 박화성(헬레나)
- 김삼식(베드로) - 박화성(헬레나)
- 김정선(스텔라) - 최영찬(요한), 레지나 가족
- 김 스틸라 - 백영숙(헬렌)
- 채희백(바오로) - 가족
- 염태석(파트릭) - 염 세실리아
- 오진아 - 오용덕(헨리코) 가족
- 렛거스 구역원들 - 정주원(율리아나)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2/25 주일 헌금 (184명)	\$1,116
• 교무금.....	\$3,100
장수지(1-3)	이보현(3) 염기선(2)
이광재(3)	백상현(3) 김현결(1-2)
고성희(12)	추승호(1-2) 안정자(2)
신준호(1-6)	안을봉(12-2) 이광호(3-4)
채희백(3-4)	

✿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 성당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당 내에서는 가급적 정숙하여 주시고, 미사 전에는 핸드폰 전원을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사순절 의무사항

- 재의 수요일, 성 금요일은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 사순 기간 모든 금요일에는 금육재를 지킨다.
- 가톨릭 교회에서 금식은 하루에 한끼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나머지 두끼는 가벼운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두 끼의 식사 양은 모두 합쳐서 한 끼의 식사에 해당 하는 양이어야 하며, 만 18세 ~ 만 59세 모든 성년자들은 금식재를 지켜야 한다.
- 가톨릭 교회에서 금육재는 소고기, 닭, 돼지고기, 터키 등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뜻하며, 만 14세 이상의 신자는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1.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쥘러주세요.
2.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3. 재활용 통에는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4. 바닥 청소
5. 마지막 퇴소자는 소등 및 문 단속 확인 바랍니다.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애희(율리아나)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곽 율리안나
송희수(클라라)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

- 사순시기 동안 매 주일 11시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 3/3 대건회 • 3/10 야고보회
- 3/17 청년회 • 3/24 자모회
- 3/24 주일은 성지주일 행렬 입장이 11시 20분에 시작하므로 십자가의 길을 10시 50분에 시작합니다.

✿ 2024년도 교무금 봉헌액을 정성껏 갹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교 봉사 일정

- 3/17 피스브릿지 • 4/21 노스브런스워 • 5/19 노스에디슨+메타천

✿ 예비신자 수련식

- 3/3, 3/10, 3/17 3주간 예비신자 수련식이 주일미사 중 거행됩니다. 부활 성야에 있을 세례성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될 예비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예비신자 명단 : 이준원 (대부 김성일 베드로) 주혜윤(대모 이서형 요안나)

✿ 2024 Bishop's Annual Appeal <Stay with us, Lord : Renew our Hearts and Send Us on Mission>

- 메타천 교구내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4 Bishop's Annual Appeal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4년 분당 목표 금액은 \$37,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분당으로 귀속됩니다
- 2/23까지 약정된 금액은\$10,482 (목표금액의 28.3%) 입니다.

✿ 사순특강 및 판공 성사

- 일시 및 장소: 3월 6일(수) 오전 10시 친교실 (약 1시간 진행)
- 강사: 정장용(타대오) 수사 신부님 (예수의 꽃동네 수도회 아이티 분원)
- 주제: 사순시기와 믿음생활
- 특강 후 판공성사가 있습니다

✿ 사순판공

- 일시 및 장소 : 3월 10일(주일) 오전 10시 30분 - 11시 20분(50분간)
- 프린스턴 한인 성당 손대혁(루치오) 신부님께서 성사를 주실 예정이며, 미사 주례 후 판공성사가 재개됩니다.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 3월 10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기획분과 회의

- 일시 및 장소 : 3월 17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레지오 마리아 아치에스 행사

- 일시 및 장소 : 3월 24일(주일) 미사 후 성당
- 레지오 마리아의 가장 중요한 연중행사로서, 협조단원분들과 레지오에 관심 있으신 모든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 먼로 구역 모임 (구역장 : 민규란 엘리자벳)

- 일시 및 장소 : 3월 3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이스트브런스워 구역 모임 (구역장 : 장은경 에밀리아)

- 일시 및 장소 : 3월 3일(주일) 오후 1시 최진호(라파엘) 형제님 댁

✿ 렛거스 구역 모임 (구역장 : 윤준희 안드레아)

- 일시 및 장소 : 3월 17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썸머셋 구역 모임 (구역장 : 조현실 테오도라)

- 일시 및 장소 : 3월 17일(주일) 미사 후 Flaming Grill & Supreme Buffet

✿ 2023년 세금 보고용 교무금 납부 증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 제1독서: 탈출기20,1-17

그 무렵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삼 대 사 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옛새 동안 일하면서 네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집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옛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22-25

형제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요한 복음2,13-25

유대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엮어 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 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마흔여섯 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 속에 들어 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성체 기도문 ✿

오 성스러운 만찬

오 거룩한 성체여,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계시는 곳,
그리스도 수난의 기억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얻게 하소서.

O Sacrum Convivium

O sacred banquet,
in which Christ is received,
the memory of his Passion is renewed,
the mind is filled with grace,
and a pledge of future glory is given to us.

✿ 2024년 에디슨 한인 성당 사목 지표

1. 하느님을 사랑하는 삶 - 미사에 자주 참례하고 영성체를 자주 하며 고해성사를 잘 보는 것, 자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

매 주일에 미사 참석, 사순 대림 판공성사 참여, 분기별 고해성사 권장, 자연 보호,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 음식쓰레기와 각종 쓰레기 줄이기, 무분별한 소비 줄이기

2. 교회를 사랑하는 삶 - 교무금과 헌금을 정성껏 봉헌하고 성당 건물과 기물을 내집처럼 보호하고 아끼는 것

성사와 기도 중심의 성당 생활, 수입의 십분의 일 ~ 삼십분의 일 교무금 봉헌, 아끼는 마음으로 건물과 기물 사용, 사용 후 청소 및 원위치, 나갈 때 소등과 문단속, 기도를 중심으로 일치된 공동체

3. 사람을 사랑하는 삶 - 신자들이 서로를 대할 때 먼저 누구에게든 존경하고 위해주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각자의 영혼에 새겨진 하느님의 모상을 생각함, 험담 대신 격려, 뒷담화 대신 기도, 세속의 언어 대신 신앙의 언어 사용, 모든 일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느님의 섭리 묵상